

2017년 5월 29일, 성산을 삼달1리 삼달1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오해옥(여, 1933년생, 성산을 삼달1리)

- 줄거리: 바보 남편과 사는 아내가 친정 집에 간 바보 남편에게 말을 가르쳐 주어도 바보 남편은 상황에 맞지 않게 말을 하였다는 우스개이야기이다.

[제보자] 이것도 중간 치기죽. 어느 부자칩이 딸을 하나 키우는데, 사위가 하나 들었는데, 사위가 좀 축축헌 사름이라. 겐디 이젠.

[조사자] 축축헌 사름이 어떤 사름?

[제보자] 어중그렁헌 사름. [웃음] 어중그랑하단 말이주게. 그렇다는 거주. 나가 이거 중간으로 곤는다. 하루는 처가칩이서, 가시어명 장모지 뭐, 아판네 보레 오렌 헌 거라. 뽕문안을 오렌 허난, 사위가 처가칩을 가난 흠끔 부족헌 사름이난 아무런도 말을 안 허네. 이젠 뽕 가난, 각시허는 말은 각신 똑똑허난

“뽕문안 가나네 무시거렌 굽디가?”

허나네.

“무시거렌 곱아. 속슴헝 뽕 왓주.”

“아이고 경 헝 거꽈? 어머님아 어디 아프꽈 헤그네 영 주물라도 주구, 무시걸 먹어보쿠편 들음 허고 허주. 그자 그냥 옹니까?”

허난.

“따신 가민 경 허주.”

따시 두 번차는 어, 나가 잊어불언 못 곱켜.

아, 개는 세 번차 아픈 거고, 아, 말. 처가칩이서가 그 장인어른이 말을 샅이메 오랑 혼 번 보라고, 아, 뽕을 샅이메 왕 보라고 허난, 사원 가난 이젠, 뽕은 샅는디 가네, 뽕은 잘 샅젠도 안 허고 못 사젠도 안 허고.

“어머님아! 어머님아!”

그 각시 문저 시킨 대로,

“어머님아! 어머님아! 어딜로 아프꽈? 무시걸 해당 안넵니까?”

“아니 이 놈은 자석은 사름뽕이 허단 보난, 또 어떠한 히어뜯헌 말 곱았이넨.”

허난, 이젠 또 집이 돌아갓이난 각신

“무시거렌 곱읍디가?”

허난,
 “무시거렌 곶아, 저 사름 시키는양 난 곶았어.”
 허나네,
 “무시거렌 곶읍디가?”
 “뵈 사는디 돌아보렌 허난, 어머님아! 어머님아! 무시거 먹쿠젠 곶아동.”
 왓젠 허난,
 “아이고 경 헐 거파? 따시 가거들랑 뵈을 혼 번 돌아뵈, 뵈은 물도 곶르고 예염
 도 좋고 뵈이랑 사건 예염을 보고 사둔을 허컨 가문을 보렌 헐 곶, 경 곶앙 오죽,
 기자 읍디강.”
 허난, 이젠
 “따시랑 가문 경 허주.”
 허난, 물 아픈데 강 이젠, 물 타보쿠덴 허멍,
 “뵈은 예염도 좋고, 물도 곶루고 곶석 발이라 허염직 허우다.”
 경 곶으렌 허난 경 곶아분 거라. 게난 이젠 각신
 “무시건 곶읍데가?”
 허난,
 “곶는양 곶았주.”
 허난,
 “아이고 경 헐 거파?”
 나가 이젠 이 중간 빠전 곶아졌저.
 혼 번은 이젠 또 개가 아픈 거라. 개 아픈곶 오랑 보렌 허난, 이제 각시가
 “어떻 행 무시거렌 곶을 거라?”
 허난, 어멍이 산 때 시켜난 말을 개 아픈 디 가네, 7만히 눈 델 강, 곶곶 제멍,
 “어머님아! 어머님아! 어딜 아프과?”
 갠 깡그랑허난, 개가 뵈을 좋아하지. 깡그랑허난
 “깡 먹크라마썸?”
 경 헛덴 허주게. 거 옛말 옛말.

- 핵심어 : 부자칩 뵈, 사위, 뵈문안, 뵈, 개, 바보